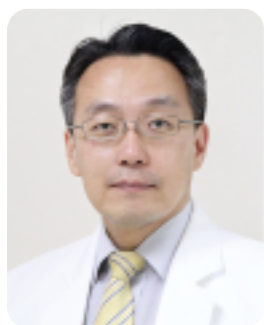


조계사, 발전기금 1억 원 기부 스님 · 신도 위한 건강검진 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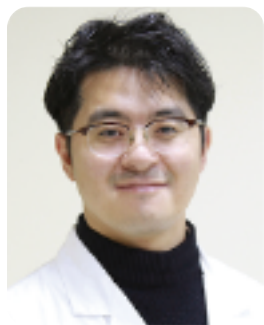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은 지난 2월 13일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주지 지현스님)로부터 병원발전기금 1억 원을 전달받고, 조계사 스님과 신도들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검진 협약도 체결했다. 조계사의 이번 동국대학교병원 발전기금 1억 원 기부는 기독교, 천주교에 비해 매우 초라한 수준의 불교계 병원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사 주지 지현스님은 “동국대학교병원 발전은 불교의료복지 수준을 높이고, 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다”며 “조계사 기부가 다른 사찰로도 이어져 동국대학교병원이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종교계 최고의 병원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형외과 안지현 교수, ‘제29차 세브란스 관절경 심포지엄’ 참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형외과 안지현 교수는 지난 2월 10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개최된 ‘제29차 세브란스 관절경 심포지엄’에 참가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관절경외과 분야에 있어 최신 지견과 술기의 심층적인 지식과 경험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로, 안 교수는 ‘내측반월연골판 기시부 파열에 적용 가능한 수술 술기(What is your best technique in MM root tear?)’를 주제로 발표했다. 올해로 29회를 맞이한 세브란스관절경심포지움은 국내유일의 ISAKOS(국제관절경 스포츠학회) 인증 관절경 심포지엄이다.

혈액종양내과 김달용 교수, 종양내과학회 ‘유튜브 · 팟캐스트로 암(癌) 물어보세요’ 참여



동국대학교일산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달용 교수는 대한종양내과학회에서 주관으로 정확한 암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 ‘그 암이 알고 싶다’를 제작에 참여해 지난해 12월 첫 회를 공개했다. 향후, 유튜브 채널 ‘KSMO TV_대한종양내과학회’와 팟빵, 아이튠즈 등에 매주 업로드된다. ‘그 암이 알고 싶다’는 암 치료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종양내과 의사 4명이 대화하듯 살펴보는 프로그램이다. 김달용 교수는 유튜브 출연을 통해 현장감 있는 암 정보를 친절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그 암이 알고 싶다’에서 다루는 내용은 소주제별 짧은 영상으로 업로드 된다. 암 정보를 검색하는 이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댓글과 메일 카카오톡 플러스친구(그암_that_cancer)를 통해 누구나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다.

특수간호팀 · 한방간호팀 ‘KNOW-HOW & HOPE DAY’ 개최

지난 1월 24일 특수간호팀과 한방간호팀은 ‘소통으로 하나 되는 특수 · 한방간호팀’이라는 주제로 ‘KNOW-HOW & HOPE DAY’를 개최했다. 부서마다 재치 있는 드레스코드를 선보이며 시작된 이 날 행사는 ‘2018 핫 이슈’와 ‘동국 2018 & 2019’에 대한 발표에 이어, ‘2019 희망돼지’라는 영상도 감상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특수간호팀장은 “변화되고 있는 병원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간호사들에게 동기부여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간호사들이 행복한 일터를 꿈꾸며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올해로 8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간호사들의 공감과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스토리

연우회 성지순례기 연재 – 1회 미얀마 봉사활동 및 성지순례 이야기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한방병원 불자모임인 연우회는 2018년 신행우수교직원을 선정해 지난 1월 25일부터 30일까지 4박 6일의 일정으로 세계 3대 불교유적지인 황금빛 불탑의 나라 미얀마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성지순례 일정은 1일차 미얀마 양곤에 도착해 1박 후, 2일차 바간 지역으로 이동해 해외봉사활동 후 아난다 사원을 순례했다. 3일차는 부처님 치사리와 결골사리가 모셔진 쉼지곤 파고다 순례, 4일차에는 인레지역으로 이동해 파웅도 파고다 순례, 5일차는 미얀마의 상징인 쉼다곤 파고다 순례를 하게 된다. 이번 성지순례는 해외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물 부족으로 어려운 삶을 겪고 있는 미얀마의 간따야 마을에 생명의 물탱크를 건립하고, 마을 초등 · 중학교 300여 명의 학생에게 학용품 지급 1,700여명의 마을주민들에게 구충제를 전달하는 일정이다. 이번 해외봉사활동은 ‘지구촌공생회’와 그동안 모든 연우회원의 회비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한 사업으로 연우회에는 지속해서 해외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